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Sep. 2015
Vol.3 No.9

- 한어청년부 수련회
- 주안에라이프
- 교육부 소식
- 화보 / 간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한어청년부(코람데오) 수련회

"Way to God! Way to Live! Worship!"



어린이 예배자학교 개강

9월부터 IC KIDZ에서 목요일(세리토스채플)과 금요일(밸리채플), 예배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Life of David" 을 주제로 다윗의 삶을 다루게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자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관련 기사: 8면>

"설레임 · 만남... 예배의 회복"

지난 9월 6-7일, 이틀간 세리토스와 밸리 한어청년부(이하 코람데오) 전체가 함께 하는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설레임'이란 주제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란 부제로 기획된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설레임 회복과 개인과 공동체 예배의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시작은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드러졌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열정적인 찬양으로 경배를 올린 뒤, 이현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예배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부족해도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간구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순서들로는 기존 수련회에서 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팀별 헌신 예배와 애찬식, 예배자학교와 같은 색다른 순서가 있었습니다. 개인/팀별 헌신 예배 순서에서는 개인 혹은 팀이 나와 평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배(간증, 찬양, QT나눔, 연극, 영상, 등)를 수련회 전에 미리 준비하여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10면에 계속) | 김숙현 자매 |



■ 주안에라이프

"수요일은 학교 가는 날" 90여명 행복한 배움

아침에 간단하게 따뜻한 커피와 보리차, 그리고 고구마, 계란, 빵 등을 함께 나누고 기도와 찬양으로 오픈하며 박현동 목사가 5분 말씀을 전해줌으로 은혜 가운데 클래스는 시작된다.

클래스는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진행하며, 강사로는 배드민턴 안병헌 집사, 바둑 Peter Chun 목사, 건강댄스 이영식 장로, 기타/노래 교실 오병순 집사, 컴퓨터/영어교실 임종구 집사, 뜨개질 이용화 권사와 이양자 권사, 스마트폰에 박현동 목사와 박경숙 집사, 키보드에 이정의 전도사, 바이블교실에 이재조 전도사, 스트레칭 서정아 전도사, 색소폰 김종환 장로, 오토하프 황영옥 권사가 수고하고 있다.

봉사자는 주방팀 안경숙, 김현숙 집사가 팀장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윤미라, 노현숙, 홍영주, 이명주, 허제니스, 현경옥, 안정순 집사, 권금자, 장정보, 김상숙 권사, 간식봉사로는 정혜옥, 김헬렌, 황영옥 권사가 맡고 있다.

9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등록하였고 그중 48명이 주안예교회 교인, 46명이 타교인일 정도



로 외부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이 바둑, 오토하프와 바이블 교실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인기과목으로는 스마트폰, 라인댄스, 스트레칭 클래스가 있다.

바둑 클래스에 참여하는 최활 집사는 "이 과목을 통하여 늦추고 당기는 배려의 삶과 마음의 여유를 배운다." 고 하였으며, 스마트폰의 강사로 섬기는 세리토스의 박경숙 집사는 "우리 학생들께서 한 기능, 한 기능을 배우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열심히 배우시는 열정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오토하프를 담당하는 황영옥 권사는 "연료하신 여섯 분의 학생이 나아가 들어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드리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다." 고 하였다.

점심식사의 팀장인 안경숙 집사는 "주방에서

어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봉사한 지 어느덧 3기를 맞게 되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번 주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실까 기대하게 된다. 한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는 주방팀을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다." 고 하였다.

주안에라이프는 김재주 집사가 국장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담당교역자로 이미란전도사가 새로이 섬기고 있다. 이미란 전도사는 현재의 각오와 심정을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 했는데 5주 동안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도하시는 국장님과 많은 감사님, 키친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 하였다.

| 공태용 기자 |

■ 성가대 야유회

주안에서 웃고, 뛰고... 서먹하던 만남이 '활짝'

2015년 9월 7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성가대원들이 옥스나드 비치 공원에서 친교 모임을 갖게 되었다. 화창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밝게 했으며, 또 새로 성가대에 신입 대원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참으로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다.

하나 둘 모인 대원들의 수가 45명이나 되었다. 노재덕 총무 집사의 사회로 먼저 예배를 드렸으며 찬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장기연 장로의 기도와 박현동 목사의 말씀은 성가대원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뜻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점심식사는 어느 식당보다 더 맛있는 메뉴로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으며, 식사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다.

윤성문 집사가 준비한 게임은 조금은 서먹했던 대원들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나로 묶



어주었고, 서로를 도와기는 협동심을 유발하는 게임과 부부애를 확인시키는 게임을 통하여,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 이광영 집사의 재치있고 재미있는 퀴즈 진행은 모든 대원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다.

남자 대원들은 파트별로 나누어 친선 족구대

회를 하면서 우의를 다졌고, 여자 대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해변가를 거닐면서 마음껏 자연을 즐기며 답소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모두가 성가대원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기로 다짐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 5교구(밸리채플)



조용한 섬김, 태신자 품기 열정

이 달엔 김준영 장로님과 김정자 권사님이 교구장이신 5 교구를 탐방했다. 조경일 간사는 “김준영 장로님과 김정자 권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말없이 먼저 움직이시고, 베풀에 아낌이 없으시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까 조심하시며, 섬기는 일에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교구장님이시고,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을 교구원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5교구는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구역은 LA 와 파사데나 지역의 교인으로 2가정, 어른 4명과 아이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장 없이 6개월 이상을 지내오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차량국과 교육부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구역 예배는 2구역과 함께 드리고 있으며, 4명의 태신자를 놓고 함께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2구역은 구역장 조경일 간사와 이지혜 집사가 이끌고 있으며 교인들의 지역과 연령 분포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장 젊은 세대로 신앙의 연수 또한 젊어, 좌충우돌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아이들 키우며 발생하는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등 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구역이다.

주로 교사나 학부모로 교육부를 섬기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젊음처럼 기대주가 되어 19명의 태신자를 품고 있으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구역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영혼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3구역은 김병선, 수지, 김효정, 윤성훈, 애니, 장준혁, 혜영, 정영수, 순정, 조성호, 현정, 안진호, 희성 등의 구역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안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 3년 여 동안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기도도 교체하고 있다. 나이 면에서도 젊은 층이요 외모도 모두 미남미녀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아름다운 집사님들이다.

교회내 사역도 열심히 대부분 교육부 사역에 헌신하고 있고 교구찬양 때면 아름다운 울동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하는 까(?)있는 성도들이기도 하다. 특별히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두 가정의 집사 부부가 예쁜 아기를 출산하여 3구역 식구가 2명이나 늘기도 했다. 구역 내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3구역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인의 기도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 | 박창신 기자 |

■ 봉사국(세리투스채플)



섬김의 땀방울 기쁨으로 송송

매주 주일 예배당을 향해 걸어가갈 때 늘 한결같이 시원한 음료수와 도넛츠가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안에 성도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 곳은 바로 주안예교회의 봉사국 팀들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봉사국의 팀장이신 김용기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 갔을 때 집사님은 시원한 물을 넣을 그릇을 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특히 음료수들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 더 세심하게 준비하는 봉사국 팀원들의 모습은 기쁨이 있어 보였습니다.

봉사국팀을 2년 넘게 섬기시고 계시는 김용기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집사님이 가장 기쁘실 때는 교인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라고 하시며 보람도 가지신다고 합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드릴 땐 죄송한 마음이 있으시라며, 조금 음식이 부족할 때에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자원하며 도와주시는 교인들로 인해 힘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봉사국 팀원들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발렌티어로 수고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 후 식탁의 교제를 위해 식사 담당을 맡은 구역들이 준비해 온 밥과 음식들과 함께 식탁을 섬기시기까지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 교인들의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이어져가고 있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식당이 없어 파킹랏을 사용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동안 섬겨온 봉사국팀들에게 어려움은 바로 날씨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날씨로, 겨울에는 비가 와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묵묵히 섬기시는 봉사국장인 정재오 집사님, 팀장 이춘희 집사님, 김용기 집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팀원으로 섬기시는 박경수 집사님, 남성우 집사님, 남지아나 집사님, 문수경 집사님, 황은숙 집사님, 류은호 집사님 모두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섬김의 은사로 주안에 교인들을 위해 몸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봉사국 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수고가 주안예교회를 더욱 따뜻한 교회로 세워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 이하나 기자 |

■ 교육부 행사

사탄 숭배 헬로윈 풍습 단절... 하나님 사랑 축제로

헬로윈의 기원이 BC.100년경 태양신을 섬기던 켈트족들이 사탄을 숭배하던 제사행위로부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10월 31일은 사탄 월력으로는 정월 초하루가 된다. 이 날은 태양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날로 1년중 음기가 가장 충만하여 떠도는 귀신들에게 공양해야 한해를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드루이드 승려를 따르던 과격집단은 이 날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무리를 지어 횃불을 들고 다니며 “바칠 것이냐? 아니면 보복을 당할 것이냐?”고 외치며 처녀공양을 받았다. 이것을 재현한 것이 바로 TRICK OR TREAT으로 귀신에게 처녀를 공양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또 하나 헬로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 잭 오 랜턴(JACK O LANTERN), 즉 망령의 같 길을 밝혀주는 호박등이다. 전설에 의하면, 술꾼이었던 잭이 마귀를 속이고 골탕을 먹인 후 죽었는데 천국도 지옥도 못가고 추운 아일랜드 밤거리를 헤매다 지쳐 마귀에게 통사정해 얻은 숯불의 운기를 지키기 위해 호박속을 파고 넣어 만든 랜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후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10월 31일 저녁 세상이 사망의 권세잡은 자와 귀신들을



달래는 축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성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밤으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자들의 날 이브(SAINTS HALLOWS' EVE)이며, 다음 날 11월 1일이 바로 모든 성자의 날(ALL SAINTS DAY)이다. (처음 609년 교황 보니파시아가 5월 13일로 제정했다가 7세기 교황 그레고리 3세가 11월 1일로 변경했고, 835년 교황 그레고리 4세가 전교회에 보급했다. *카톨릭 대사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따라해도 관습을 만든 것이 없는 귀신의 날 헬로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좀더 강경해야겠다. 세상에 만연한 악한 관습을 가볍게 여겨 동참하지 말고 의지를 발동

해 거스러보기로 하자.

아직 바른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보통 교회학교에서는 이날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년에 가졌던 할렐루야 나잇 행사처럼. 올해에는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배우고 즐길수 있는 날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나누는 교육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카니발 행사로 즐거운 시간들을 지낼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풍성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 및 스낵으로 축제분위기를 더할 것이다.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즐기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제대로 구경도 못하는 캔디, 초콜릿도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받아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카니발에는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 청년부가 함께 돕고 즐기는 자리가 되며, 동시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부모님, 교사, 성도님, 성인대상으로 가정/자녀양육/교회의 차세대를 향한 비전과 마음가짐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며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채은영 기자 |

■ 학부모 간담회

10월 알찬 교육컨퍼런스, 부모님들 관심과 지원을

9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 ICY 학부모간담회가 있었다. 점심 식사시간에 맞춰 진행된 모임에는 학부모이자 임원단 20여명의 학부모를 모시고 월간 학부모간담회가 40분정도 이뤄졌다.

지난 2년동안 쉽없이 크고 작은 파도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달려왔고 이명재 전도사가 임명된 후 정기모임으로 자리잡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과 시간 등을 조율하며 한달 한달 더하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첫번째 안건은 다음 달에 있을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부모세미나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관심사항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그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벌써 두어달 전부터 기도를 시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저 자리가 만들어지면 모여 강사의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심사 및 도움이 필요한 점들을 미리 접수하여 세미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두번째 안건은 교사 부족, ICKIDZ, ICY에서는 항상 봉사자 부족에 허덕인다. 지난 2년동안 지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의 영적인 성



장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던 봉사자들의 노고가 빛바래지 않을까 가슴저린 현장을 마주하면 깊은 한숨을 감출 수 없다.

2년전 처음 밸리채플 교육부가 움직일 때는 세리토스 채플에서 봉사자들이 올라와 힘을 더해야 했을 만큼 일손이 딸렸지만, 지금 ICKIDZ는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시는 부모들의 헌신으로 교사 부족은 많이 나아졌다.

불과 1년 전 주일 출석 학생수가 두 채플을 합하여 100여명 되던 인원이 200명을 훌쩍 넘었지만 부모님들의 지원이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면으로 지원과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적하는 기성세대의 과

을 대물림하는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만들어 가길 바란다.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품에서 떠나 보내며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신갑주를 입히기 위한 준비와 노력과 투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부에 관계되어 있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올해를 전환점으로 내년에는 더욱 성장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 학부모 간담회는 다음 달에도 이번에도 모인 식구들 이외에 더 많은 부모님과 기도로 지원하는 성도님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채은영 기자 |

■ 한어청년부(코람데오) 수련회 간증

하나님이 불편해서 자꾸만 외면해버리고 싶었던 딱 그 시점에, 청년부 수련회의 팀장으로 섬겨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근 한 달, 마음이 아닌 몸뚱이만 가까스로 나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고, 삶속에 예배를 놓치고 나니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휘둘리고 있던 터였다. 잘못임을 알며 짓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은 상한 마음이었으니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아버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됐다. 수련회 예배를 위해 팀원들을 위해 기도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도, 당장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진실된 기도가 나올 리 만무했다. 연극대본준비, 소품준비, 말씀암송준비, 다른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내 마음은 예배를 향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팀장 자리가 마치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서 수련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마음을 다잡고 수련회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기도도 함께해주셨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준비과정에서 나를 너무나도 격려해준 리더 언니오빠들 덕분



우아라 자매

미루고 피하던 회개의 기도
붓물 터지듯 잘못의 고백이...

이다. 이분들을 통해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끝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도착하자마자 드리려던 첫 예배를 여는 찬양순서부터 회개의 눈물이 펄펄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회개를 미루고 또 미루면서 하나님을 피하려했던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입에서 붓물 터지듯이 잘못들이 고백되어졌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쭈뼛쭈뼛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려했는지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음에서 오는 고백이었다. 그리스도인의 다섯 가지 확신을 공부하며 외웠던 성경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하는 말씀을 알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온 맘 다해 감사할 수 있었다.

예배와 내 삶의 gap 을 확인하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회개가 행동으로 연출되기를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는 이번 수련회 표어가 뜻하는 바처럼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절교해내는 용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삶의 기준삼아 사는 내가 되고 싶다.

수련회 순서 중 각자의 방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개인 헌신예배 시간을 통해, 찬양으로, 기도도, 간증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보며,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청년으로써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아버지가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삶속에 그대로 가지고 와 예배와 말씀으로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무심코 나에게 팀장을 해보지 않겠냐는 양국민 전도사님의 제안에 아무 것도 모르고 나는 부담없이 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팀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감을 몰랐고 팀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

부족한 점이 많은 나에게 팀장이라는 자리는 쉽지 않았다. 팀원들에게 연락을 자주하며 팀원을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팀원들과 팀별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팀원들이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자신의 삶이 바쁘게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도전받게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예배의 회복”, “예배”에 집중되는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수련회를 가기 전 나는 많이 지쳐 있었다.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조금 시들어 있었던 상태였다.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



권기민 형제

집중할 수 없던 하나님 예배
그저 그분만 바라다 보기로...

는 기회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느끼기 힘들었다. 나는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빨리 이 힘든 것을 치워달라는 투정을 부리곤 하였다. 이러한 투정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은 둔해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기 어려웠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보다는 내가 처해진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였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가운데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에게 목사님의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들어왔다.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된다고 하셨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수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셨다. 나는 나의 상황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더 성숙한 믿음을 길을 갈 수 있게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많은 도전을 받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개인예배와 다른 팀들의 예배를 통해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나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쳐있던 마음을 위로해주셨다. 아직 나에게는 갈 길이 많고 많이 넘어지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 한어청년부(코람데오) 수련회



■ 성가대 야유회



■ 주안에라이프 수업 모습



"정의감이 아닌 하나님 사랑"

살롱! 주안에서 문안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주말마다 먹었던 추억의 잔치국수, 그리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사랑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교회였다고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에 자고 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저를 업고 새벽예배에 참석하시던 부모님의 믿음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항상 중보해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저의 믿음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 후로도 종교등부에서 부회장, 회장, 찬양팀, 그리고 한글학교 교사를 하면서 활발하고 역동적인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미국에서 8학년) 때였습니다. 종교등부 수련회에 올라가서 내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죄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크게 분노했던 감정들마저 회개를 하며,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를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체감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위해 제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입하면서 그 기도를 잊고 켈스 테이트 롱비치에서 Criminal Justice(범죄학)을 전공하고 Forensic Science(과학수사학)를 부전공으로 학업에 몰두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남다른 정의감을 갖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학업을 마치면 경찰이나 변호사로서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낯선 이민 땅 타지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으시더니 거실로 나와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찾으며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시절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신 것과 찾아와 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 찾아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서원을 하던 어린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평평 울며 회개하고 그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예배를 실패하고 있었던 터라 그 부르심에 반응 할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family business를 도우며 어떤 직업을 갖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뵈러 잠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응답할 은혜와 믿음을 넣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면서 반응할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와 섬길 교회를 찾던 중, 주안교회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섬기길 원하심을 응답받고 현재 Talbot에서 M. Div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저의 콜링에 대해 나눌 때 "정의감을 갖고 살다가 진리를 만나 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도덕심 그리고 그 정의감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자리까지 인도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강슬로몬 전도사
(IC KIDZ)

아름다운 어린 예배자의 모습



이명재 전도사
(교육부 디렉터)

할레벌떡 뛰어오는 아이, 끊임없이 말장난하는 아이, 앞에서 뭐라하든 상관없는 아이, 뒤돌아있는 아이, 물 마시려/화장실가려 들락거리는 아이, 내던진 가방 찾는다고 나가는 아이, 몇 걸음도 뛰 어가는 아이, 기분상하면 눈감아 버리고 단절하는 아이, 빠져서 안들어오거나 튀어 나가는 아이. 참 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실에 들어오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보다 등을 기대 고 앉아 재미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본인이 예배를 받고 있는듯한 그림을 연상케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이 반듯한 예배자 로 세워질 날을 기대하며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은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편리함을 선호하고 육체의 움직임은 줄어가고 있는 시대, 개인의 인격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참모습이란 정의를 내리기에도 많은 혼란을 겪으며 가야 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염려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눈동자들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부분까지 마음과 몸으로 습득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바꿀 주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 마치 그분이 눈앞에 있 듯 움직이는 우리의 동선을 보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선 선생으로, 가정에선 부모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의 본을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과 눈동 자에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가운데 드러져야 할 예배, 내면의 중심과 외적태도를 동반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자 학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진 예배자의 태도와 성 품을 배우며, 삶 가운데 연습과 적용을 해 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중 심/타인중심에 마음을 맞추도록 관계 안에서의 공동체예배에 초점을 둡니다. 찬양가사의 의미와 몸의 예배와 자세, 그룹activity/게임, 기도 저널, 말씀암송, 생각게임 등을 통해 바른 예배자의 소양들을 함께 갖 추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대일 관계형성과 관심으로 각자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고 가정에서의 태도를 부모님이 함 께 모니터링하시면서 지도해주실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입으 로 마음으로 울려나오는 찬양을 통해 그들 안에 그늘이 없어지고, 무 질서가 질서로, 분노가 평안과 기쁨으로, 자아중심이 타인에 대한 배려 로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 닌을 부모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와 관심, 삶의 모습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주동안 '행복한 훈련' 성령의 도우심

인도자 교육 1단계를 마치며 이제 첫발을 딛고서 소감을 적는다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11주의 훈련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교육훈련을 장로님들로만 구성되어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던 훈련은 첫 시간부터 저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벨리에 계신 세 분 장로님들과 함께 훈련에 편성되었을 때는 거리도 있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LA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1주의 훈련을 함께하며 열심히 과제를 준비하고 토론과 질문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갔던 장로님들의 열심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 내내 행복한 훈련의 과정을 지내며 참석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감동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토의하며 지냈던 시간이 성령님 돕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없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과정에 저에게 생각났던 성경구절은 시편 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였습니다. 진실로 인도자와 훈련생이 하나 되었던 시간, 수요일 저녁 3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늘 시간이 짧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유년기를 더 알기 위해 노력했던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마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함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들의 자리는 여러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 간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누는 자리, 약한 자들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돕고 섬기는 자리 등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성령님 주시는 성도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급번 1단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인도자 훈련에 성실히 임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이현욱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일 장로



정도영 장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새롭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해본 주안에일꾼 제1권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었지만 이번 공부를 통하여 생각지 못한 부분을 찾게 되었으며, 같이 공부한 장로님들의 생각과 지식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왜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늘 있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았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수난기, 부활기 등으로 다섯 단계별로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기록한 많은 내용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기는 힘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대적으로 구분한 것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느 시기에 일어난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배웠으며, 성경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 (관찰, 해석, 적용)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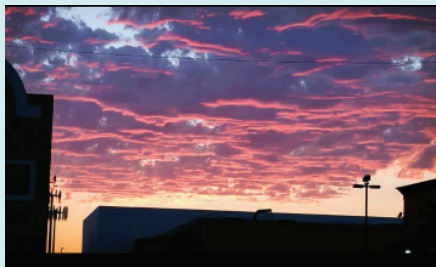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예수님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써의 예수님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하나님의 본성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닌 헤롯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계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정확한 때와 장소,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이심을 증명하셨으므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성경을 확실히 알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인내하여야 하겠다.

많은 성도들이 주안에일꾼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성도의 삶을 재조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원해 본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간단한 일상 함께 나눠주세요.
이메일(cccnews123@gmail.com)



에고고.. 살기 버겁네...
절로 나오는 한숨을 쉬며 축 처진 어깨로
한참 늦은 퇴근을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한시간 거리를 달려 마지막 언덕길을 오를 때쯤
산미루에 펼쳐지던 노을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저녁노을..
바람이 분다. 색이아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색이아갠다...

<2015년 9월 8일>

■ 한어청년부(코람데오) 수련회

고민과 아픔 서로 나누고 비전과 꿈 꽃피워



〈1면에 이어〉 30여 팀/개인의 예배가 진행되었고,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타인이 준비한 마음의 제사를 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찬식에서는 각자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개인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평소 함께 떡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꿨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코람데오 형제, 자매들은 눈물로 서로를 중보하는 사랑과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예배자학교에서는 청년들의 궁금증들을 사전 조사하여 준비된 ‘크리스천 데이팅’, ‘진로와 비전’, ‘안되나요, 왜?(크리

스천 관점에서 본 술, 담배 등의 기호품 소비, 가요청취 등에 대한 강의), ‘QT묵상’이란 4가지의 주제의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 강의들을 통해 청년들은 개인의 예배를 지키는 법과 크리스천 적인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로 수련회에 대한 후기를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청년들의 연휴를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오길 잘했다는 나눔과 함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개인/팀별 헌신예배와 예찬식, 예배자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노동절(Labor Day) 연휴를 포기한 약 40명의 청년들과 4명의 사역자, 10여명의 봉사자(식사/간식/음향 등)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식사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몇몇 청년들은 든든히 식사를 할 수 있어 ‘덕분에 수련회 내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경퍼즐
정답

문제는 12면에

| | | | | | | | |
|---|---|---|---|---|---|---|---|
| 에 | 라 | 스 | 도 | 벨 | 드 | 사 | 살 |
| 훗 | | 르 | | 릭 | | | 인 |
| | 언 | 가 | 데 | 스 | | 에 | |
| 신 | 약 | | 오 | | | 스 | 람 |
| | 게 | 사 | 빌 | | 아 | 골 | |
| | | 데 | 살 | 로 | 니 | 가 | |
| 미 | 항 | 만 | 가 | | 신 | 실 | |
| 가 | | 에 | 노 | | | 로 | |
| 엘 | 리 | 에 | 셀 | 르 | 호 | 보 | 암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키 아이디어

집에서 쉽게 만드는 영양 간식

Fruit Cookie

박창신 기자



지난 구역예배 때 황제니스 집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환상의 ‘과일 쿠키’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여 집사님께 만드는 법을 받았습니

1. 재료 쿠키 40개

다목적용 밀가루 2&1/4cup, 베이킹소다 1/2 tea spoon, 소금 1/2 tea spoon(Optional), 버터 8 Oz(2 sticks), 달걀 2개, 흑설탕 1&1/2cup, 말린 체리 1&1/2cup, 피스타치오 1&1/2 cup, 얇게 저민 알몬드 1&1/2cup, 채친 코코넛 1&1/2cup, 작게 자른 말린 살구 1&1/2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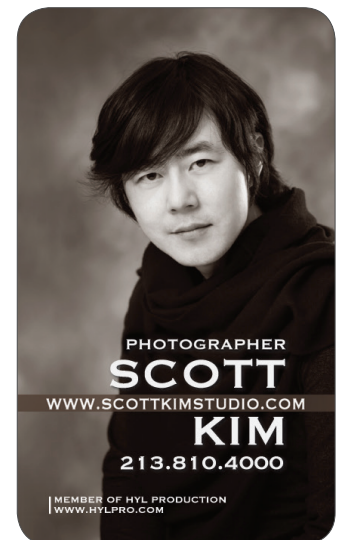
2. 만드는 법

- 1) 오븐을 화씨 375도로 예열 한다.
- 2) 예열하는 동안:

- a. 버터를 녹여 흑 설탕과 섞어 놓은 후 잘 저은 달걀과 함께 섞는다.
 - b. 밀가루, 베이킹 소다, 소금을 함께 섞어 채에 쳐 놓는다.
 - c. 큰 그릇에 위의 a와 b를 함께 섞어 반죽한다.
 - d. 마른 과일들을 c의 반죽과 함께 섞어 놓는다.
- 3) Baking Pan에 위의 d를 한 숟갈씩 떨어뜨려 화씨 37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2분 동안 굽는다.
 - 4) 오븐에서 쿠키 팬을 꺼내어 구워진 쿠키를 살짝 식힌 후 철망에 옮겨 나란히 펼쳐 완전히 식힌다.

* 어떤 주식과도 잘 어울리는 후식 또는 간식이다.

교/우/비/즈/니/스



PHOTOGRAPHER
SCOTT
WWW.SCOTTKIMSTUDIO.COM
KIM
213.810.4000
MEMBER OF HYL PRODUCTION
WWW.HYLPRO.COM

■ 삶에서 만난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처방전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 주셨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 생활, 성경을 읽지 않고도 성경이야기를 많이 알 만큼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웬지 모를 목마름은 항상 제 삶과 함께하였고 나의 삶에 대한 태도도 소극적이었다. 기도는 항상 입과 머리로 하여 상투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어느 날 작은 사고로 시작된 건강 문제가 조금씩 커져 의사의 권고로 오랜동안 출근하던 직장에 병가가 시작되었을 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한 성경 통독을 친근한 권사님들의 권고로 함께 시작했고, 이어서 주안에 삶 1, 2 공부로 이어졌다.

성경 통독과 주안에 삶을 통해 나는 귀한 권



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법, 기도하는 법, 사탄을 이기는 법, 옛사람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항상 편한대로 타협(?)하며 게으른 신앙 생활을 해 온 나에게 이 모든 법들은 내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의 게으름과 안이함에서 벗어나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내가 잘 한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바로 읽고 바른 기도를 하여 사탄, 옛

사람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제까지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게 급한 사명임을 깨우쳐 주셨다.

읽으며 잠냄에 쌓이고 그래서 바로 잠에 빠지게 하던 성경 읽는 시간이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가 되었다. 매번 시작할 때마다 길고 지루하리라 생각했던 성경 통독, 주안에 삶 1, 2, 그 과정들은 많은 생각을 하며 즐겁게 지낸 가장 짧았던 과정들 중 하나였다. 이 과정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항상 실수하는 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몸과 마음으로 전하려고 한다. 이 귀한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 행위와 입으로 하기를 원한다. | 박창신 기자 |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ians Company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 캐 • 리 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1.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 파송된 바울의 동역자(행 19:22)
3. 다니엘에게 주어진 바벨론 이름(단 1:17)
6.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의 대부분을 지낸 브엘세바 남쪽의 오아시스(민 13:26)
9.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기록된 27권의 성경
10. 여호와를 섬기는 세 장의 날개를 가진 천사(사 6:2-6)
11. 거짓으로 남을 속임(벧전 2:22)
13. 아간과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 이름(수 7:24-26)
14.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마게도냐의 한 도시(행 17:1-10)
17. 바울이 로마여행시 들렀던 그레데의 항구(행 27:8)
18. 믿음성 있고 착실함(신 7:9)
20. 아브라함의 종으로 다메섹 사람(창 15:2)
21. 솔로몬의 아들로써 즉위 직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됨(왕상 12:1-2)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정답은 5면에〉

| | | | | | | | | |
|----|----|----|----|---|----|----|----|----|
| 1 | | | 2 | | 3 | | | 4 |
| | | | | | | | | |
| | 5 | | 6 | 7 | | | 8 | |
| 9 | | | | | | | 10 | |
| | 11 | 12 | | | | 13 | | |
| | | 14 | 15 | | 16 | | | |
| 17 | | | | | | | 18 | 19 |
| | | | | | | | | |
| 20 | | | | | 21 | | | |

〈세로 문제〉

1.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한 왼손잡이 사사(삿 3:15-30)
2. 다비다라고도 불리는 선행이 널리 알려진 여성도(행 9:36)
3.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한 로마총독(행 23:24)
4. 십계명 중 6번째 계명(출 2:13)
5.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 향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던 께(삼상 4:5)
7.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눅 1:3, 행 1:1)
8. 포도로 유명한 헤브론 북쪽의 골짜기(민 13:23)
12.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로 '살

- 아있으나 죽은 자' 라는 책망을 들은 교회(계 3:1)
15.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앗수르 왕(왕하 17:3)
16.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행 6:5)
17. 수호천사이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천사장(단 10:13)
19.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샘(요 9:7)

“주안에” 2015년 10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서미숙, 서세건, 이하나,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가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